

공현 후 3주일(연중 3주일) 감사성찬례

집전: 최마우로 신부 설교: 조프란시스 신부 보혈조력: 정요셉 지휘/선창: 박어거스틴 반주: 당그레고리
실시간 동영상 오전 11시 www.youtube.com/ 성공회 산본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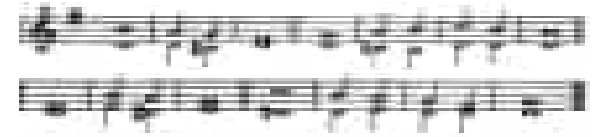
개회예식

†입당성가 259장 다 함 께
†정심(淨心)기도 8쪽 집 전 자
†죄의고백 9쪽 다 함 께
†영광송 12쪽(C곡) 다 함 께

말씀의 전례

†본 기 도 집 전 자
사랑의 하느님, 우리를 부르시어 제자로 삼으시고 복음을 전하라 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하느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1독서 이사 9:1-4 말 은 이
성 시 27편 다 함 께



- 1 주께서는 나의 빛, 내 구원이시니,
○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 2 주께서 내 생명의 피난처시니
○ 나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 3 주님께 청하는 단 하나 나의 소원은
○ 한평생 주님의 성전에 사는 그것뿐.
- 4 아침마다 그 성전에서 눈을 뜨고
○ 주님을 뵈는 그것만이 나의 낙이라.
- 5 나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당신 초막에 숨겨 주시고,
○ 당신의 장막 그윽히 감춰주시며
바위 위에 올려 높이시리라.
- 6 "나를 찾으라" 말씀하셨으니
내 마음 그대로 아뢰옵니다.
○ 주여, 이제는 당신을 뵈게 하소서.
- 영광이 |성부와 ○ 성자와 |성령 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 그리고 영원히, |아- |멘

2독서 1고린 1:10-18 말 은 이
†복음환호송 집 전 자
†복음서 마태 4:12-23 집 전 자

설교 조준행 신부
니케아신경 16쪽 다 함 께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 말 은 이

성찬의 전례

†평화의 인사 19쪽 다 함 께
†봉헌성가 395장 다 함 께
성찬기도 20쪽 1 양 식
거룩하시다 22쪽(C곡) 다 함 께
주의기도 25쪽 다 함 께
성체나눔 26쪽 다 함 께
하느님의 어린양 ... 27쪽(C곡) 다 함 께
성체성가 361장 성 가 대
†영성체후기도 29쪽 다 함 께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소식 신 자 회 장

파송예식

†축복기도 29쪽 집 전 자
†파송성가 403장 다 함 께
(†는 일어섬)

	이번 주일(1월 25일)	다음 주일(2월 1일)
1독서	최미혜	김병재
2독서	홍종분	권용준
대 도	정연창	조장은
다음주일 전례독서	말라 3:1-5 시편 24 히브 2:11-18 루가 2:22-40	
성 가	178 179 406 397	
복 사	최하현 장태현	보혈조력 정스테반
다음주간 교회청소	권순호 황선숙 김운권 홍양금	

(1997-2026 / 교회설립 29주년)



성공회 산본교회

St. Clare's Anglican Church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21, 청진빌딩 7층 ☎ 031-397-0443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공동체

2026년 1월 25일 공현 후 3주일(연중 3주일) · 가해 · 녹색

제30-4호

오늘, 다시 들려오는 부르심 -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갈릴래아의 길을 걸으시며 첫 전도 여행을 시작하십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은 단호한 명령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의 완벽한 준수나 성전의 제사에 머물렀던 옛 질서를 넘어, 이제는 예수님의 삶과 마음, 그분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제자들은 그 부르심 앞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들의 즉각적인 순종은 놀랍고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음부터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성서는 종종 과정의 이야기를 생략하고 결단의 순간만 전합니다. 그 안에는 그들 나름의 망설임과 두려움, 인간적인 갈등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결국 세

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스승 예수의 길을 택했습니다. 바로 그 길이 생명의 길이며, 제자됨의 본질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의 이 부르심은 단 한번의 선택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시작되는 응답의 여정입니다. 나의 일상 속에서, 나의 관계 속에서, 나의 선택 속에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일입니다. 제자의 길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하느님 나라를 자신의 삶 안에서 드러내는 그 자리가 바로 제자의 자리입니다. 새해를 맞아 다시금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귀 기울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께서 이끄시는 복된 여정을 걸으며 하느님 나라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제자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교구장 김장환(엘리아) 주교 / 관할사제 최용준(바우로) 신부
신자회장 최용옥(어거스틴) / 사제회장 김운권(베네딕트) / 원로회장 한명숙(올리야나)

주님의 봉헌 축일 - 봉헌된 신자의 기쁨

다음 주일(2월 1일)은 주님의 봉헌 축일을 옮겨 지킵니다(2월 2일 → 2월 1일로 옮김). 주님 성탄 후 40일째에 성모 마리아께서 율법(레위 12:1-8)에 따라 정결예식을 행한 일과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한 일을 기념합니다. 주님의 성전 봉헌은 한나가 사무엘을 성전에 봉헌한 일(1사무 1:24-28)과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의 만배를 살리신 일(출애 13:1)과 연결됩니다. 본래 하느님의 차지인 첫아들을 그 부모가 성전에 값을 치르고 '속량(贖良)'하여 기르며, 하느님이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신앙을 지켜간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봉헌 축일에 하느님께 바치는 봉헌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태어나서는, 세상 모든 것이 내 것이어야 하는 것처럼 욕심을 부리며 일희일비하는 게 인간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이 하느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 깨우침과 감사의 표시가 봉헌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느님께 바쳐진 존재요, 신자의 삶은 하느님께 자신을 바치며 살아가는 일 자체입니다.

봉헌은 대가를 바라는 선물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일이 자격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의 은총 덕분이듯이, 우리의 봉헌도 조건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베푸시는 은총에 사랑으로 응답하는 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봉헌은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고, 오직 감사와 사랑으로 바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전에 봉헌된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연로한 시므온과 안나는 하느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봉헌의 성전은 곧 선교의 현장입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자기 시대에 갇히지 않고 미래를 향한 열려있는 원숙한 선교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다음 세대와 새교우를 환대하고 격려하고 신앙을 물려주는 선교의 모범입니다.

이 축일에 우리는 한 해 동안 성전의 제대와 가정의 기도상을 밝히는 양초를 봉헌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봉헌된 아기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셨듯이 축복된 양초로 기도하는 우리도 세상에서 사랑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외롭고 가난한 이에게 손을 내밀고 새로운 세대, 낯선 사람의 손을 맞잡아 세상을 밝히는 일,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 되어 성부께 봉헌된 신자의 기쁨입니다.



이번 주간 외울 말씀 25

들어야 믿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교회소식

■ 전례와 사목

◆ 공헌 후 절기(연중절기)

사순절 첫날(2/18)전까지를 공헌 후 절기(연중절기)로 지킵니다. 전례색: 녹색, 전례곡: C곡, 기원송가: 영광송(C곡)입니다.

◆ 주님의 봉헌 축일

2월 1일(다음 주일)은 주님의 봉헌 축일로 지킵니다. 이날 교회는 한 해 동안 교회와 가정에서 사용할 초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물 봉헌 시간에는 헌금 서약서를 봉헌합니다. 아직 제출하지 않은 교우들은 서약서를 작성하여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 알림

◆ 2월 교회위원회

2월 8일(주일)에 2월 교회위원회가 있습니다.

◆ 조준행 프란시스 신부님 설교

오늘(25일) 11시 성찬례에는 조프란시스 신부님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 소그룹 모임

오늘(25일) 애찬 후에 소그룹 모임을 가집니다.

◆ 성직자 인사 발령(이임: 2월 1일, 부임: 2월 8일)

최용준 바우로 신부 → 수원교회 관할사제

조준행 프란시스 신부 → 정년퇴임(발령 2. 28일)

김문영 키프리안 신부(현 부천교회 관할사제)

◆ 청년회, 학생회, 아버지회 풋살 경기

오늘(25일) 오후 2시 / 경기외고 풋살장

◆ 2026년도 십일조(월정헌금) 봉헌 서약

성전 입구에 비치된 봉헌 서약서를 기도 가운데 작성하여 봉헌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모아서 2월 1일 주님의 봉헌 축일에 함께 봉헌합니다. 액수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담은 마음입니다.

■ 교우 소식

◆ 생일 축하합니다

유군상(25일) 윤희진(28일)

지난주일 봉헌 내역

■ 십일조 · 월정헌금 1,030,000원

김준우/조장은 유군상 이상헌/최미혜 임혜지 장성환 정국진/이숙영 최서은 최자연/윤병로

■ 주일헌금 146,000원

권순호 류한신 박선희 박종례 백옥경 유군상 임혜지 장성환 장재현 장태현 최순덕 최용옥 황선숙

■ 감사헌금 110,000원

이건상 조준행신부(은혜) 최하현(건강) 허예영(추도)

■ 특별헌금 30,000원

유군상(나눔의집)

< 성공회 산본교회 봉헌 안내 >

신한 100-033-428656 대한성공회 산본교회

◆ 주간 전례독서 (1월 26일~31일 / 공헌 후 3주간)

	독서	복음
26일(월)	사도 22:3-16	마태 10:16-22
27일(화)	사무하 6:12-15, 17-19	마르 3:31-35
28일(수)	사무하 7:4-17	마르 4:1-20
29일(목)	사무하 7:18-20, 24-29	마르 4:21-25
30일(금)	사무하 11:1-10, 13-17	마르 4:26-34
31일(토)	사무하 12:1-7, 10-17	마르 4:35-41

✧ 기도해 주세요 ✧

◆ 우리교회를 위하여

- 일상에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 지역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 환대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되기 위하여

◆ 전도대상자를 위하여

- 주님을 만날 때까지 품고 기도합니다.

◆ 환우 교우를 위하여

권영분 김길자 김승숙 김옥현 김형기 박종례 안병순 임광호 이성중 이연학 유군상 유정환 조준행 신부 정시원 최숙진 한명숙

◆ 해외 체류

김보미 조민규 조이준 방유미 이형석 디아나 이주안 임인택